



대앵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앵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모든 것을 안으로 찾고 안으로 굴러야

### 법문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문** 마음공부를 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공부할 해 나가다 보니깐 스님께서 펼쳐 놓으신 법문을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보거나 듣게 되면 왠지 모를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지 그것이 공급합니다.

**답**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내가 그런 소리 잘하죠.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진으로서 불이 들어온다구요. 불 아닌 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물은 예도 없고 대답한 예도 없는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큰 에너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에너지를 불리고 또 쓰고 또 불리고 하는 것에 속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우리가 원력이 얼마나 크면, 즉 말하자면 얼마들이 입신을 해서 예를 낳는 거와 같이 이 은하계에서도 그렇게 한번 터지면 수없이 나오는데 그 뒤로 또 그게 모여서 새로 나온 것은 크고 나중엔 늙어서, 사람이 늙으면 옷을 벗듯이 원소가 나오면 그 원소끼리 또 모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도리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주인공이라는 셋발을 진짜로 믿는다면 연방 통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집니다. 떨어져 먼 사이가 없고 가까워도 가까운 사이가 없고 가고 옵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가고 옵니다. 했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 에너지는, 금방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말은 보이지 않게 했는데 보이게끔 나타났다는 것처럼 이 익하게 됐다 하는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가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관없는 거죠. 우주 안에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이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름 모르더라도 좋아요. 이름을 알고 한다면 벌써 이미 늦어지니까요. 6·25 때 보니까 사람이 먹고 채웠는데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을 때, 그러면 의사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없을 땐 어떡하느냐? 그래서 말없이 그체가 갖게끔 하는 것이 원력인 것입니다.

### 종교를 믿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

**문** 종교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불교도 기독교다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등, 종교가 사람을 참되게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교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참다운 역할과 종교를 믿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주의 근본이 한 사람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의 공에서 내 마음 자체가 그대로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그거고 그것도 그거다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불교라는 것도 이름이고 기독교라는 것도 이름뿐인 것이다' 라는 거 말입니다. 그것은 이름뿐이지, 진짜 인간이 공심으로 공생하고 공심하고 있고 공체로 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런 상관이 없으나 만약에 그 도리를 몰라서 지해를 범하지 못한다면 건건이 걸리게 되죠. 마음이 '나는 기독교

를 믿는다' 하는 데서 멈춰지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절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불교로서의 절대적이라는 게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건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기독교인인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교인이라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틀리다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들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는 체험해서 틀이 아니라서 걸 자기가 스스로서 감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틀이라고 볼 때는 반드시 일은 일어나죠. 상대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상대와 나와 틀이 아닐 때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스님이 아주 도가 높으신데, 마적 두목이 칼을 들고서 "당신 속에 뭐가 그렇게 묘한 게 들었는지, 보물이 들었는데 당신의 가슴 속에 내가 칼을 넣는다면 안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짚 보겠다고 했는데, 가서 짚 보려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운 겨울 날씨에 고목이 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스스로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을... 고목을 잘라 뺐던들 그 속에서 꽃이 나오겠느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적 두목도 그 스님한테 마음을 숙이면서 겸손하게 몸도 숙였답니다.

마음이 숙여지면 몸도 저절로 숙여지죠. 그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어붙으면 겨울과 같습니다. 아주 잔뜩 얼어붙은 얼음과 같아서 마음이 녹질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

음이 지혜로우니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삶을 보람되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공부라는 것은 한 쪽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은 버려야만 불법이라고 하는 거, 또 좋은 것만 해야만 불법이라는 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런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파악하고 우리가 그 진리에 의해서 순응하면서 항상 자유스럽게 내가 참나름이나 무면서 생동력 있게 그것을 용(用)을 하면서, 개발하면서 좀 더 삶의 보람을, 우주의 섭리를 한꺼번에 쥐고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하고 그저께도 말하고 만날 없으면 되풀이하는 말입니다만, 되풀이를 삼 년을 하고 나도 영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삼 년이 되면 해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풀이 안 하겠습니까? 되풀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되풀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 우린 역력히 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 만물이 다 물질적인 자체가 허망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렇게 개발되면서도 아주 화합적이고 화합하면서 자비스럽게 나갈 수 있는 생동력,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공용으로써, 공심의 능력으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문제야, 어저께가 오늘이고 어저께 한 것을 오늘 갖다가 힘으로써, 틀이 아님으로써 내일의 개발이 오늘의 개발입니다. 오늘의 내가 한 생각 내지 않았다면..., 나쁘게 냈든지 좋게 냈든지 내일에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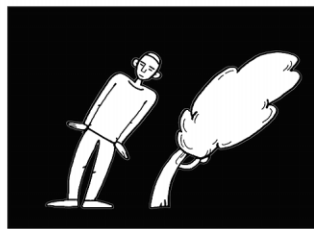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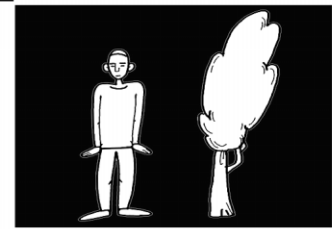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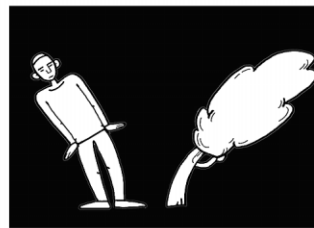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우리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소나무가 사철 푸르듯이 항상 청새와 같이 푸를 수 있어

음이 봄이라면 산천초목은 조화를 이루고, 향기롭게 푸르고 말입니다. 물은 우수와 같이 흐르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그렇게 흐를 뿐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도 봄이라면 그렇게 푸르고 조화를 이루면서 도도하게 강물은 흐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맥이나 동맥이나,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오르락내리락할 때 몸에도 이롭고, 벌써 어떠한 감정이 나서 그것을 편치 못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꼬부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차차차차 조금씩 쌓이다 보면 병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됩니다. 봄이라야 생동력 있게, 즉 말하자면 저 산천초목이 푸르듯, 소나무가 겨울 여름이 없이 항상 사철 푸르듯이 마음이 항상 청새와 같이 푸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

내일이라는 것은 꼭 하룻밤 자야만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일을 저질러 놔든지 또는 일을 잘해 놔든지 수습을 해 놔든지, 바로 오늘 해 놔기 때문에, 지금 해 놔기 때문에 이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이 이따가 다가오는 거, 어저께 해 놓은 것이, 아까 해 놓은 것이 지금 다가오는 것, 이것이 모두가 삼심이 바로 일심도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살고 있는 생활이만큼 그 생활을 떠나서는 불법도 없고 기독교도 알라신도 모두 종교라는 것은 이름이지, 생활을 떠나서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 떠나서 부처는 없는 것입니다, 각자.

그러나 모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점도 많지만, 그전에도 그런 얘길 했죠. 서대문 위에 능금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 쪽을 지나서 얼마 안 가면 산모퉁이에 그전에 일본 사람이 짓고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방에서 죽는 게 아니라 꼭 바깥에 나와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흉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집에서 잘 지냈는데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뱀뱀 그렇게 죽었다는 얘입니다. 나중에 그 도리를 그래도 웬만큼이라도 알아서 한데 톱질 잘 알고, 한데 톱질다가 다시 톱 잘 알고, 뿔다가 다시 톱 잘 알고 사는 사람이 들어왔다 내놔. 내는 것도 없고 들어놓는 것도 없이 들이고 내는 것이 유유히 자유스럽게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애들을 유학도 보내고 그 집을 팔아 가지고 떠 데서 살지만요. 그 사람네가 그 집을 흉가에서 살 수 있는 집으로 면해 놔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 한생각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부딪치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어떻게,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에 의해서 나고 드는 것이 공에서 나왔다 공으로 든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으로 찾으며 모든 것을 안으로 굴리면서 내고 들이는 것이 내 안으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또 오관을 통해서 내고 들이는 것이, 바로 오관은 문이란 말입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그래서 잘 정돈하고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책정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생각에 일체 신이 들어 있으니까 이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아니요 저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다 이 소립니다.

내가 그 도리를 안다면,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고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법신이 될 수 있고 보신 화신이 다 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나누어서 말할 건 없죠. 허나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면 서로가 저쪽에서 조금 세면

이쪽이 집니다. 우환이 생기죠. 저쪽에서 세면이쪽이 우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서 만약에 부처님의 참 뜻을 잘 파악할 줄 안다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든, 기독교 믿는 사람이 세를 들었던 그것을 다 커버해 나갈 수 있어요. 그걸 다 나로 돌려서, 하나로 돌려서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불교를 믿는다고 미워해도 이쪽으로 와서 화살이 맞을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든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쪽에서도 자비심이 없고 법으로 나간다면 화살은 여기 왔다 다시 그쪽으로 되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보살행이라' 이러한 것은 내가 그 도리를 완전히 안다면 그 화살이 나한테로 온 것이 그러리다 가서 맞게 하지도 않고, 항상 굴리면서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 큰 강물에 톱물이 들어가든 흙물이 들어가든 빗물이 들어가든 항상 한 강물이 되듯이, 그렇게 마음의 지혜를 넓히고 상대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크다면 아무하고 같이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 데, 도량이 넓지 못하다면 무슨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금 있는 데 무쇠가 갈리 없고 또 무쇠 있는 데 금이 갈 리 없고, 세상 진리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생각하는 대로 지혜가 넓고 적고 이런 데서 오는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 바람을 거스르는 향이 있는데...

**문**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 못하는데 거슬러가는 향도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는지요?

**답** 질문 잘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섯 가지 마음의 계량(戒量)을 마친다면 자재천(自在天)에 들어 아주 자재로이 계율을 더했다 덜했다 할 것도 없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없을 것이니라. 성불을 한다 못한다도 없을 것이니라, 여자 남자



그림 · 최주현

# 어떤 것이든지 다 봐서 다 버려야

29면에서 계속

도 없을 것이니라. 길고 짧음도 없을 것이고 어제 오늘 내일도 없을 것인데. 그 까닭은 수행을 다 끝마쳐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나왔으면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일체 만법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증오도 미움도 없을 것이고, 세상 법에 누(累)가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계율을 지키다 안 지키다도 없이 계율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니까,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기고 들고 나고 하는 걸 알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잘못게 나오는 것도 그 자리라고 믿고, 잘못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는,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으셔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둘로 보지 않는 관찰 체험,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셋째입니다.

또 넷째는, 그렇게 들이 아니게 관찰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가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자생중생의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얽히고설킨 그 무명, 묶여 있던 것이 스스로 풀어진다 이겁니다. 묶였던 게 스스로 풀어지고, 풀어지니까 여여하게 다스리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나에게 달기만 하면 그 무명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다섯째, 해탈지견(解脫知見)! 삼라만상, 그 만물만생을 마음으로 항상 느끼죠? 느끼고 보살핌이 항상 밝아요. 여여하고 항상 밝고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구족(具足)함을 해탈지견(解脫知見) 거기까지 마쳐야만이 여자 남자도 없고, 더하고 덜함도 없고, 즉 말하자면 성불을 한다 못한다도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없고, 계율을 잘 지키다 못 지키다도 없이 자재천(自在天)에 들어서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고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는데, 거슬러 가는 향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랬는데 그것은 다섯 가지 계항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고, 둘째는 전체 놓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놓고 가듯이 말입니다. 어떤 거든지 다 봐서 다 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다 놓는 거예요. 다 봐서 다 않는 것을 둘째라고 한다. 다 놓게 되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문제가 나오요.

셋째는 다 봐서 다 얻었다면 모든 일체 중생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천차만별로 달라고 하더라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완결돼야 바로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지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도 다섯 가지의 계율(戒律)을, 마음의 계항을 다 마치고, 또 세

가지 조건까지도 마치고 난 뒤에야 거슬러 가는 향이 있으니 그때 가서는 거슬러 간다 거슬러 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죠. 사방팔방에 모든 향음이 어느 법계(法界)나 어느 중생에게나 닿지 않는 데가 없기에 종소리가,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났는데 그 종소리를 일체 만물이, 만물만생이 다 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문제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됩니까. 그럼으로써 그렇게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사방이 북 터졌을 것이요, 지붕도 없을 것이요, 땅도 따로 없을 것이요. 그러니 평등공법(平等空法)이면서 활공공법(活空空法)이면서 또는 수례공법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평등한 공법(空法)이요, 깃들 얘기 가끔 하죠? 깃들 주는 움직여라지 않



그림 · 최주현

## 생활을 떠나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떠나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요. 곡식을 갈아 낼 때에 맷돌 추가 움직여라지 않는 게 아니라 힘만 가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 놓는다는 게 어느 물건이든지 다 맷돌에다 넣어서 갈아 내는 현공입니다. 그러니 그 주는 바로 움직여라지 않는 불성을 말하고, 움직여라지 들어가서 갈아 내는 것은 법을 말하고, 또 할 수 있는 마음 자체의 다스림은 바로 갈아 내는 이걸 말하죠. 그래서 그 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했으니 진짜 여러분의 실상이면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고 '나는 몰라서 그렇고,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자부 의식적으로 들어가니깐 말입니다.

### 힘이 없이 하라는 뜻은?

힘이 없이 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한 식구라도 원망을 하고,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모두 남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건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아갈 때가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 각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남의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잘못든 잘못든 말입니다. 그렇게 안다면,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 더불어 동등하게 나오고 또 그럴 따라다니면

서 구경하고 이리저리 않고도, 몸을 가지고 그렇게 애 쓰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참나참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어 하며, 우리가 살아있어 사는 겁니까? 힘이 없이 사는 겁니까. 힘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모두가 공했다고 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살고 이렇다는 게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험히 할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주인공이다 모든 거를 맡겨 놓고 사사리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이거를 원망하고 저걸 원망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느라고 사는 재미가 없이 살아요. 그게 사람

래서 아픈 걸 면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경험을 해 보지 않고는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어찌 말로 선포해봐도 다 하리라. 사람 사는 데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삶이 있다고 단정 지어서 몇 마디도 할 수가 없죠.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죠. 귀정지어 놓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달라도 생기면 가다가 땀뭍이 걸쳐 있으면 그냥 한타 안 한타도 없이 그거 치우고 갑니다.

### 49재와 100재에 대해서...

사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분을 위해 49재와 100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49재와 100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사십구재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십구재라고 뜻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놓고 볼 때 동서남북이 한데 합쳐서 사방천, 이렇게 할 때는 법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 들어가면 질문을 하죠? 문제의 답변을 받고 전부 쓰고 그렇게 해서 모두 그걸 가지고 법을 청하죠. 그거와 같이 49재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문의 받고 나서 그 뒤에 무죄로 나오든지 유죄가 돼서 들어가든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00재다 한다면, 공부한 사람들이 알고 본다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9재 지내고서 100재 날은, 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상들을 한데 모아서 재를 지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이익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살아오면 대로 이게 그르고 저게 옳고 하면서 일일이 따져서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뛰어넘으세요.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한통화료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02)737-0090, 팩스 (02)737-0697

## 관절과 연골에

###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완전한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활염증 작용
- 활염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활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시고등으로 인한 관절염의 증상 치료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 x 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물안데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기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문란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발이 지르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지탄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비네발,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발보효소)**

# 당 하 당 뇨

##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도 무료로 드립니다.

(신착순 전국 1,000명)

-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 복용후 효과 있음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 성인당 특관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 영험도 노량

픽미숙

**불로살남 가피력 받은사람**

참회하는 마음 > 갖는사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기쁨을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원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 해원사

최하루, 18일 법회 신중심회기도

031-736-3734 · 732-3790